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6년도 표어 ☉
교회, 백성의 위로자(사40:1)

☉ 행동지침 ☉

- 1. 세계 복음화
- 2. 교회 천국화
- 3. 문화 기독교화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 강해

고난의 종

(시편 22:1 - 21)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못에 찔려 죽게 되시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는 어떤 면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실 다윗 시대에는 십자가 형틀이 없었으나 시인은 고난의 주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라 미리 맹세하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행 2:30).

1. 어둠의 시간을 통해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종

예수님의 고난 받으심은 다윗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이미 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두려운 마음에 재판을 연기시키려고 했지만 자기의 안전을 위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생각한 것은 오직 자기의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울고 있는 여인들을 보시며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 울라”(눅 23:28-31)고 하시며 다가올 무서운 날들을 예언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두 손과 두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눅 23:43)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가 아닌 백성들의 죄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의 생명만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은 그날 정오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땅은 온통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아마도 이 어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지시고 죽어가는 아들 예수님을 보지 않으시기 위함일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3시간 동안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①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1절). 예수님은 갑자기 소리를 치십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 받으신 것입니다.

②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1절). 대속의 사역은 예수님 홀로 하셔야만 했기에 예수님을 도울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③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1절). 인간 때문에 버림 받으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리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외침은 이미 수 천 년 전에 예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는 동안 구약성경을 묵상하셨고 다른 이들의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깔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시편 22편의 성취로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음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생명은 시의 마지막 절을 인용하므로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절망 중에 죽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예수님은 버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버림 받은 시간은 바로 우리가 버림을 받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대속의 진리입니다.

그의 속죄 사역은 그의 고난을 통해 완성되었고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2. 고난 받은 구원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았다고 느끼고 낙담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버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버림 받은 시간은 바로 우리가 버림을 받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대속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내 하나님이며’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한 조상들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그들은 구원하시고 왜 나는 버리시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아는 예수님은 자기에게도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조롱감이 되었습니다. 배고픈 것, 힘든 것은 참아도 멸시를 당하는 것을 참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조롱과 멸시를 감당하시며 별레

취급을 받는 비통한 자리에까지 떨어지셨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습니다”(9절).

예수님은 낙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기도 하십니다. 신앙은 의지하고 맡기는 것, 곧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드렸습니다. 헌신이 없는 신앙은 아직 확실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승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고통도 당하셨습니다(12-18절). 십자가는 유대인의 형틀이 아니고 로마인의 것으로 시편에 언급된 것은 모두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마침내 고난의 종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를 회복합니다(19-21절). 히브리 원문에는 19절의 ‘여호와’ 앞에 당신(야타라)는 말이 있어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체는 시인이 원수에게서 여호와께서 시편을 읊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시어’라고 하며 힘의 본질인 하나님을 부르는 신앙고백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어둠의 시간은 지나갔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효험의 범위는 너무 크고 넓고 높고 깊어서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 역시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 받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이 진리를 믿고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SB(코리아 위성방송)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을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부목사 두 분 청빙키로

정수길, 장석남 목사 청빙케 돼

우리교회는 하나님의 목회에 동참할 부목사 후보를 면접하고 두 분의 부목사를 청빙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청빙하는 두 분 부목사는 정수길 목사와

장석남 목사로 간단한 약력 및 가족사항 그리고 맡을 부서는 다음과 같다.



· 정수길 목사(62. 8.13)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장신대 신대원 졸업
장신대 대학원(역사신학) 수료
송학대학교, 동암교회 부목사 역임
오전숙 사모와 2남

▶부서: 5,6교구, 고등부, 교구위원회



· 장석남 목사(65. 3.12)
장신대 신학과 졸업
장신대 신대원 졸업
장신대 대학원(기독교와 문화) 수료
연기교회, 은광교회 부목사 역임
강남희 사모와 1남1녀

▶부서: 청년부, 70인전도대, 영어예배부

2006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교회는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지난 순례자를 통해 발표된 2006년 1학기 장학생에게 장학금과 장학 증서를 수여 한다.

2006년 1학기 장학생은 고등부 5명, 대학생 18명,

브리스길라 장학생(신학생) 1명 등 총 24명으로 서울교회 규정 제20조(장학회)에 의거 선발되었다.

장학생들은 오늘 찬양예배에 반드시 참석하여 장학금 수여식에 서야 한다.

해외 체류 성도들에게 순례자 발송한다

서울교회에 출석하다 외국으로 이민을 갔거나 혹은 유학으로, 업무차 해외에 장기체류 하고 있는 성도와 근북부 중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고국과 본 교회 소식을 전하고자 순례자와 주보를 발송키로 하였다.

순례자를 보내실 성도들은 순례자를 받을 친지나

자녀 또는 알고 있는 교우들의 정확한 주소(E-mail), 전화번호를 각 교구담당 목사에게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VISION 2020운동 후원자의 밤 개최

오늘 찬양예배 후 6시30분 8층 만나홀에서

우리교회는 비전2020 운동본부(위원장: 진돈 장로)를 설립, 진중세례식, 사관학교 졸업감사예배, 사랑의 은차 나누기 운동 등 군선교 사역을 통하여 오는 2020년까지 전체 국민 75%를 복음화 하기위해 기도와 후원을 계속하고 있다.

비전 2020운동 본부는 2006년 들어 새로이 비전

2020 운동 후원을 받으며 그동안 기도와 물질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찬양예배 후 후원자를 위한 초청의 밤을 개최한다. 비전2020운동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2006년 섬김위원 요람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

2월12일, 19일 주일 | III부 예배 후 104호 응접실에서

교회는 남녀 서리집사까지 포함된 2006년 섬김위원 요람을 제작하고 있다. 교회는 서리집사 중 사진이 없는 성도들을 위해 오늘과 다음 주일(19일) 두 번 사진촬영을 한다.

촬영은 주일 I III부 예배 후 104호 응접실에서

한다. 서울교회 서리집사로 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성도들은 반드시 촬영에 임해 요람에 본인의 사진이 빠지지 않도록 유의 하기 바란다.

교회 종탑 건립한다

당회는 우리교회 건물의 외관에 일곱 촛대의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옥상에 종탑을 건립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하였다. 시공회사는 (주)브살렐로 정해졌다. 교회종탑을 건립하는 동안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완공되어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도록 기도한다.

육사 졸업감사 예배

2월28일(화) 오후7시 육사교회에서

육군의 간성으로 부름받은 육사생도 졸업 감사예배가 2월28일(화) 오후7시 육사교회당에서 우리교회 후원으로 거행된다.

이들이 일선 부대에 배치되면 지휘관이 됨으로 복음확장에 크게 기여케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우리교회 시은찬양대(대장 이영기 장로)가 그리고 비전2020 운동본부에서 지원케 된다.

29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안내문 발송준비

2월14일(화) 오전10시 104호실에서

3월6일(월) 개강하는 제29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한 안내문 발송작업이 2월14일(화) 오전 10시 104호실에서 시작된다.

29학기 목회자세미나 준비를 위해 함께 수고하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원감 조정식 장로)이 주최하고 있는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15년째 매년 2학기씩 계속되고 있으며 교계에 널리 정평이 나 있어 많은 교역자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고 있다.

제6기 결혼예비학교 개강

2월19일(주) 12시30분 609호실에서

제6기 결혼예비학교가 열린다. 서울교회 성도로 본 교회에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커플과 결혼을 앞둔 청년부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결혼예비학교는 3월19일(주)까지 5주간 계속된다.

비전2020 운동 후원자 명단(2차)

강승웅(서경애) 고석규 권장환 김광태 김대웅 김복순 김사라 김상태 김진희 김해수 나점균 남영주 박기남 (강영순) 박순옥 박우주 서춘식 오광환 오정수 오치열 오형철 원용규(박이선) 유병옥 유복달 유중관 윤현미 이갑진 이경구 이남복 이남성 이병현(채경희) 이복규 (한명순) 이상호 이순례 이승희 이재운 이점숙 이준호 이훈 임인숙 장효정 전수자 정희진 조동완 조영자 조정식 지혜영 진교남(김희옥) 천기성(박천희) 최광성 최금봉

장로가정탐방-신용식 장로 가정

교회를 위해 몸을 던지는...

우리 교회의 막내 장로님이신 신용식 장로님은 한국기독교실업인회(CBMC)에서 이복사님의 복음적이며 성경적인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고 1993년부터 서울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있다.

서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참 힘을 깨닫게 해준 하나님의 사랑과,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신이 있다고 감사해 하시는 신 장로님은 화장품 무역업인 (주)르본을 경영하시고 있다. 10년간 서울시 산하 행정직 공무원 생활을 하시던 중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지 스무 해에 접어든 이즈음도 신 장로님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강력하게 사업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80년 김신영집사와 결혼한 신장로님은 슬하에 두호, 채호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신 장로님은 늘 자신의 곁에서 신앙의 동역자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아내 김신영 집사에게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하며 김집사님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게 주님의 일에 항상 최선을 다 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회사에서도 항상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사람이라고 남편신 장로님에 대해 말한다.

올해 임마누엘찬양대장과 청년부 부장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신 장로님은 올 한해 청년들이 한 가지 이상씩 교회 봉사를 하며 헌신하기를 기도한다고 하시며 봉사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으며 신앙 없는 봉사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말씀 공부에 심혈을 기울이고 성령에 사로잡힌 청년들로 가득한 서울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신다고 한다.



신 장로님은 이외에도 재정위원회 서기와 14교구를 담당하시고, 김신영 집사님은 아멘관현악단 부대장, 시은 찬양대와 임마누엘찬양대를 섬기고 막내 채호는 핸드벨콰이어에서 봉사한다.

신 장로님은 생의 크고 작은 풍랑 앞에도 법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배하는 삶이 될 때에 주님 주시는 축복이 임함을 아신다. 그래서 신 장로님은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한다. 나소정(편집부)

신앙강좌1부에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매주일 2부 예배 후 12시40분부터 4층 402호(가이오실)에서는 김영한 목사님(협동목사:현 숭실대학 신학대학원장)이 강의하시는 신앙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힘찬 기쁨의 찬송과 주제에 따른 성경 한 장 분량을 한 목소리로 통독 한 후, 듣게 되는 강좌는 작년년부터 계속되어온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 하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편을 끝내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 시간은 주일예배 설교 말씀의 여운을 갖고 크리스찬의 신행 일지 삶 속에 적용과 행위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는 이유로 깊은 회개와 사죄의 은총을 맛보게 된다.

특히 여타 유익한 장년 성경반이 많이 있지만 훌륭하신 장로님들의 채취와 명패가 부착된 좌석에서 느끼는 아늑하고 중후한 교육장의 분위기, 그리고 김영한 목사님의 솔직함과 친근함이 어울려 더욱 풍성한 영의 양식을 접할 수 있다.

강좌후의 질의와 응답,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의 교제는 만나홀에서 갖는 식사시간에도 이어진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을 생각하며 가이오실이 차고 넘치는 강좌가 될 것이라 기도하고 소원한다.

- 박정수 집사(신앙강좌1부 부감)

천국시민양성-권사 수련회

보배롭고 존귀한 선교 여성

봄이 온다는 입춘이 무색하게도 영하권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뜰권사회와 권사회가 연합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선교여성의 주제로 수련회가 진행되었다.

강사(이연옥 권사) 강의로 권사님들의 표정은 놀라운 깨달음과 굽은 허리에도 다시 허리띠를 조이는 열띤 도전과 다짐으로 수련회장은 마치 봄날을 맞은 듯 영적 물오르는 소리로 어느새 보배롭고 존귀한 선교여성들로 환하여졌다.

권사는 하나님께서 값진 보화와 같은 존재로 부르시고 교회여성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다. 보화와 같이 값진 여성은 협력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하며 평화를 창조하는 화목한 성품의 소유자들로 변화 되어야 한다.

교회를 비롯한 모든 공동체에는 3대가 존재한다. 과거 땀 흘린 선배들을 섬기며 존경해야 할 세대, 현

재 일하는 일꾼들을 격려와 칭찬으로 위로하며, 미래 주인공들의 젊은 세대에는 사랑의 투자와 인물을 육성해야 할 3세대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뤘다. 예쁘게 기쁘게 바르게 헌신하여야 한다. 보배롭고 존귀한 선교 여성은 교회를 위해 비전과 소망을 주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 기독교여성들은 권사로 나라를 구했으며 많은 기독교 단체와 학교를 세웠으며 국내외선교와 사회봉사와 한국교회의 성장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값진 여성들이었다.

베다니의 옥합을 깨친 여인과 같이 주님을 위해 최상의 헌신 최고의 헌신 사료 깊은 헌신으로 진정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냉랭하면 여성부재다. 여인의 손길이 있는 곳에 인류는 반드시 빛나고 있다.

권사들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모성애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여권운동을 모성애 회복운동이라고 한다.

여성의 몸은 신비하여 생명임태와 양육하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관대하고 성장과 치료까지 인내와 희생의 상징이 어머니이다. 권사는 기도의 어머니이므로 모성애를 발휘하여 누구에게나 축복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한 은혜로 살아야 하며 여성의 위상과 헌신해야 할 많은 일들을 당부하셨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옥합을 깨친 여인처럼 여성들의 헌신의 모델이 되어 영원히 기념되기를 바란다.

이영희 권사(권사회장)



수요어린이 예배에 자녀들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어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전도하는 서울교회 수요 어린이 예배가 있습니다.

학교로 학원으로 어른들보다 더 바쁜 우리의 어린 자녀들, 세상의 문화와 유혹에서 벗어나 우리가 물려줄 것은 오직 믿음의 유산이기에 여기 수요 어린이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도 수요 어린이 예배에서 당신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미래의 지도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명철 목사님의 말씀과 화가이신 김유선 선생님의 그림 그리기 수업, 이주현 선생님의 영어성경시간과 찬양과 율동의 정미연, 박수진 선생님, 또 안성희 선생님의 맛나는 구연동화시간.

뜨거운 선생님들의 기도 소리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

룩펠러 어머니의 교훈을 생각하며 수요일 오후 5시에 당신의 귀한 자녀가 603호 문을 두드리기를 기다립니다.

- 이승우 집사(수요어린이예배부 부장)

100교회 후원 결연 현황

만민에게 전도

겨울수련회에 초대합니다

신혼가정부 겨울수련회

디아스포라부 겨울수련회

송영준 성도 (신혼가정부 회장)

박우주 권사(디아스포라부 부감)



샬롬!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위에 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울교회에 북한출신의 탈북주민들을 위한 성경공부반인 디아스포라부가 개설 된지도 어느덧 세 번째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해는 좀 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 우리 디아스포라부 가족들이 2월 17일(금)부터 18일(토)까지 서울교회에서 "주님의 기도"라는 주제로 2006년도 겨울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겨울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디아스포라부 가족들은 주기도문에 담겨진 깊은 뜻을 공부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아버지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한 교사선생님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한 단계 발전시키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6년도 디아스포라부 겨울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탈북난민을 위한 성도님들의 기도가 쉽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교회의 디아스포라부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기를 바랍니다.

번호	교회	교역자	지원자	구좌			
21	후평	이영룡(전)	여유현, 양미숙	1			
			오정수	1			
			오치열, 하숙	1			
			오형철, 신동기	1			
22	신계	김계식(전)	왕경래, 김정희	1			
			이상태, 방승희	1			
			원용규, 박이선	1			
			원용범, 김영희	1			
			유봉려	0.5			
23	옥산	이정우(목)	주원순	0.5			
			유승현, 오자경	1			
			윤봉준, 김명화	1			
24	달성소망	허금준(목)	원희숙	0.5			
			정원기, 이주희	0.5			
25	수련	김재화(목)	은기장, 김경숙	1			
			26	사월	장택환(전)	이강인, 허숙	1
			이건모			1	
			이남성	1			
			이동만	1			
27	록계	고영준(전)	이명구, 문옥일	1			
			이영기, 이영숙	1			
28	금곡	조정원(전)	이영조, 이만광	1			
			조순엽	0.5			
29	두산	박기혜(전)	이정수, 최경분	2			
			30	도진	김원택(목)	에스더전도회	3
31	서미	전치숙(전)	한나전도회			1	
						도르가전도회	1
32	이승천	이봉우(목)	아브라함	1			
			빌립선교회	1			
			33	오치	강석황(전)	바울선교회	1
			베드로선교회			1	
34	광은	민만기(목)	이준호, 이은희	1			
			이홍재	1			
			35	방주	심연자(전)	임경락, 김해중	1
			임광식, 노영숙			1	
			임상현, 서희숙			1	
36	방잠	정봉기(목)	임충식, 신선주	1			
			37	주영	이재민(목)	보보전도회	3
			장명순			1	
			장애희	1			
			전기설, 원영애	2			
38	안평	김성은(목)	안드레	1			
			39	방하제일	최근성(목)	엘리아선교회	1
			사라전도회			2	
40	감은	고창연(전)	전수자	1			
						정동학, 김복순	1
			조명준	1			
41	율목	최종덕(전)	주영도, 오가연	1			
						차도훈, 남태영	1
						초등부	1
42	부남명성	신덕만(목)	최공천, 이정희	1			
						최광성, 이정연	1
						최난수	1
						최순애	1
43	고곡	황현석(목)	마리아전도회	4			

다음 주 계속

동정

예배 및 집회

- 이종훈 목사는 16일(목) 복음신앙동지회, 17일(금) 한국기독교 학술상 시상식을 집례한다.
- 출산 <독녀> 공성호, 박은주 성도(11교구) 2월2일 장정환, 방정미 성도(2교구) 2월8일
- (발령) 이대중 집사(7교구) 재정경제부 소비자보호국 선임 사무관
- 주간 식당 봉사: 바울전도회(2월12일) 엘리아선교회(2월19일)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겨울성경학교·수련회 은혜 중 진행되도록
2. 육사 졸업생과 신입생들의 신앙증진을 위하여
3. 성경대학을 비롯한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4.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교회오시는 길

